

대구광역시 민영공동주택 출입구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Entrance of Privately-built Apartment housing in Daegu

서희숙*
Seo, Hee-Sook

이상홍**
Lee, Sang-H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nalyzing the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Entrance of Privately-built Apartment housing in Daegu from the 1970s to the 2000s. First of all, this study made an investigation into the general situation of Privately-built Apartment housing and the general idea of the Entrance. Through a field study, This study was analyzing change of an era of entrance of Apartment housing till quite recently existing in Daegu. The results are as the body III follows. Results of the research through change of an era is as follows. The change tendency is not to be big before 2003, but It has under gone change after 2003. Studies show that It is the care for the old and the weak, to take interest in natural lighting, to be going to change from passing the time of space to staying space and more space, to show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public peace and design. So, The Entrance of Apartment housing has a bias towards more elegant. This research look forward to having an intention of furnishing preliminary data for a residence environment of high quality.

Keywords : Entrance, Privately-built Apartment housing, Transform, Factors of Entrance Construction

주요어 : 출입구, 민영공동주택, 변화, 출입구 구성요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전쟁 이후, 주택 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고 좁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도입되면서¹⁾ 대구에서도 1968년 동구 신천동 신천아파트 575가구와 69년 동인시영아파트 272가구가 건축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동주택들이 건설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은 해소되어져 왔고 시대적 변화 요구에 의한 거주자들의 질적 측면에 관한 요구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공동주택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단위세대이지만 외부와 주동내부를 연결하는 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주출입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동내 계단실, 엘리베이터 실, 복도 등을 연결하는 역할로서 천편일률적으로 계획되었고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의 유입이 개인적이고 폐쇄적이었으나 주출입구 내부²⁾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생활 영역의 확대 및 이웃과의 교류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각 주동내의 출입구에 대한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출입구 전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구광역

시에 현존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출입구 변화에 대하여 각 연대별로 분석하고 출입구의 변화경향과 그 출입구 내 공용공간의 변화과정을 조사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서 민영공동주택의 건설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수성구를 연구대상지로 정한 후, 대구시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의 2004년 주택통계연감⁴⁾에서 6층 이상의 중·고층아파트-고층아파트는 계획, 설계, 구조, 설비 뿐만 아니라 시공과 건물의 사용방법에서도⁵⁾ 일반 저층아파트와는 차이를 보이므로 5층 이하 아파트는 제외-를 선정하여 주출입구의 평면, 외부, 내부구성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 최은희(2003),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 평면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 본 연구에서는 주동 출입구 1층 공용공간을 내부라고 한다. 주동 출입구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안을 출입구 내부라고 하고 밖을 출입구 외부라 한다.

3) 박세환(1996), 공동주택 주동내 공용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4) <http://plan.daegu.go.kr/statistic/data1.html>

5) 조종수(2004), 시대변화에 따른 서울지역 고층집합주거계획의 비교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10호

*정회원, 경북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정회원, 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연구방법 1단계인 연구대상의 선정방법으로는 대구시청 통계자료실의 2004년 주택통계연감의 '03공동주택 공급 실적에서 공영주택에 비하여 민영주택의 건설이 가장 활발한 수성구<표 1>를 선택하여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체 221개 단지에서 먼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층 미만의 저층아파트를 제외하고, 6층 이상인 152개 공동주택 중 동수가 하나인 것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각 연도별 조사대상의 수가 많은 곳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선정하여 최종조사대상을 78곳⁶⁾으로 채택하였다⁷⁾. 2단계로 연구대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도면을 요청하거나 요청을 거부한 곳은 직접 실측하고 출입구 내·외부의 사진촬영 및 실측한 도면의 치수나 도면사진을 CAD를 이용하여 각 공동주택의 평면도를 정리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정리한 도면과 사진으로 주동 출입구에 관한 평면 및 내·외부의 구성과 연대별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입구의 평면 및 내·외부의 구성방식의 특성과 그 변화에 관하여 조사·분석하여 각 연대별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표 1. 03 공동주택공급실적 (단위: 호)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공공부문	-	-	2,459	594	-	-	494
민영부문	274	101	7,748	6,204	258	4,210	3,003

표 2. 조사대상지(수성구)의 공동주택단지 분포현황

연대	전체 단지 수	6층 이상 단지 수	6층 미만 단지 수	공영부문		민영부문
				주공	시영	
1970	22	4	18	-	-	22
1980	64	14	50	1	3	60
1990	86	85	1	1	11	74
2000	49	49	-	-	-	49
합계	221	152	69	2	14	205
				16		

II. 이론적 고찰

1. 공동주택의 이론적 고찰

1) 민영공동주택의 개황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⁸⁾ 1세

6) 조사대상 수: 70년대(4), 80년대(16), 90년대(45), 2000년대(13)
 7) 1976년에서 86년까지는 1동으로 이루어진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조사대상지에 포함하였고 그 이후에는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는 곳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87,88,90,99,2000,2001년에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드물어 시대별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연대별 연결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연대별 2~3곳을 연구대상 범위로 하였다.
 8) 이광노(2001), 건축계획, 문운당

대 당 397 m²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이러한 공동주택이 민간업자에 의해 주도되어 건설되어지는 것을 민영공동주택이라고 한다.

민간주택 개발업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전까지 문서화된 자료가 거의 없고, 개발 양태, 주택형 등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던 경제는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침체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정치적 상황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도시빈민들의 소요는 정부로 하여금 대중의 복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는 250만호 주택건설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72~76년까지 100만호, 1977~81년까지 150만호를 각각 건설하고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민간주택에서도 개발계획, 시공계획 및 분양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간주택건설업을 육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민간 주도적 주택공급전략의 표현으로 1970년대의 팽창적 경제정책과 함께 사 금융시장의 팽창으로 토지 및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이 늘어나면서 공급량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고 민간부분의 건설량이 크게 늘어났다⁹⁾.

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의 개황

대구광역시 역시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중반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었고, 이러한 주택과 토지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주택형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보급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주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었던 달서구, 북구, 수성구 아파트의 분포비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표 3, 4>되었고, 이들 3개구는 각각 약 5만 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어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층아파트의 대량 건설은 주거 밀도를 높이는 최대의 요인이 되고 있고,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시 외곽으로의 인구가동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주거 밀도의 분포가 변화하였다¹⁰⁾.

표 3. 구별 아파트의 분포비율 (비율: %)

연도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1998	2.2	3.5	18.8	11.5	5.4	23.2	35.3

2. 출입구의 개념 및 역할

출입구는 외부와 내부의 주호 공간을 연결하여 주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주호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

9)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5), 공동주택 생산기술의 변천에 관한 연구
 10) 권용일(2001), 대구시의 주택보급과 주거밀도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54-155

표 4. 주택유형별 건설현황 (비율: %)

년도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2003	23.3	21.3	60	40	23.6	54.1	67.5	49.7
2002	23.5	21.3	58.3	40.7	23.8	55.5	67.7	49.9
1998	22.9	20.6	54.0	39.2	23.6	54.5	66.6	-

*주택통계연감의 주택 유형별 건설현황에서 각 구청별 총 주택 수에 대한 아파트의 비율.

**표 3과 표 4의 1998년은 권용일(2001)의 <표 4>에서 발췌.

하여 외부와 주출입구 사이의 공간이 공적공간에서 반공적공간으로 전이되거나 반공적공간에서 반사적공간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게 하는 완충지 역할과 함께 상층부로 연결하는 공용 서비스공간이 되기도 한다.

출입구 내부의 역할은 상층부 주민들에게는 수직 동선으로 연결된 내·외부공간의 경계지역으로서 내·외부의 완충공간의 역할, 자기 집으로 향하는 과정적 공간으로서 전이적 역할, 주민들 사이의 접촉이 가장 활발하고 사회적인 교류가 기대되는 공간으로서 사회적 접촉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출입구는 불특정 다수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는 인자로서 외부에서 건물로의 접근을 유도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통로의 실질적 경계점이 되며, 통로와 공간과의 결절점의 역할로 건물전반의 공간구성과 보행자들의 행태에 시지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축요소이다¹¹⁾.

III. 조사대상 현황 및 조사 분석

1. 조사대상지 선정 및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공동주택 분포도가 높은 곳으로 인구수는 445,039명이며 세대수는 143,965¹²⁾이다. 경산시와 인접하여 있고 동·남으로 연결된 접근성이 용이한 영남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전체면적의 76.6%가 녹지 지역이고, 공항, 역, 터미널 근접으로 교통편리지역이며, 대구의 행정·법원,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체신청, 환경관리청, 방송국 등·금융, 교육·대구시 전체의 20.2%를 차지하는 중·고교의 수·의 중심지역이다. 수성구의 면적은 76.45 km²이며 2004년 대구통계자료실의 통계를 보면 공영아파트에 대한 민영아파트의 건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주택보급이 목적인 공영아파트 보다는 분양 목적인 민영아파트의 계획이 보다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는 다음과 같다<표 5>.

2. 주출입구의 연대별 구성에 관한 특성 분석

1) 조사대상 분석방법

11) 김찬주·박영기(2004), 복합용도건물의 출입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 2004년 12월31일 기준(대구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실)

표 5. 조사대상 공동주택 및 주동 수 (주출입구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현장 사진촬영과 실측)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공동주택 수	3	11	22	6
주동 수	4	16	45	13

*조사대상 공동주택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평형대를 조사하였으므로 주동 수가 공동주택의 수 보다 많음.

혹은 도면사진 촬영 후 CAD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면에 나타나는 특성과 외·내부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별 변화과정에서 조사대상수가 적게 분포하고 있는 10평형대와 70평형대 이상, 그리고 하나의 동에 평수가 혼합되어 있는 곳은 자료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평면에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코어의 구성 및 배치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유사형태가 많이 있는 30평형대에서부터 60평형대에서는 형태를 분류하여 축약하였으며, 20평형대는 복도형이 주가 됨으로써, 그 형태에 있어서 유사성을 찾기가 어려워 조사대상 수에 모두를 포함하였다. 70~80년대에는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이 20평~30평형의 혼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20평형대에 포함하였다.

외부의 구성요소는 <표 7>에서와 같이 주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료, 지붕형태, 진입관계, 계단 혹은 경사로의 유무, 천장의 형태 및 재료 등으로 분류하였고, 내부의 구성요소는 <표 8>에서와 같이 천장, 벽, 바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요소에 대한 형태와 마감재료 등을 세부 조사하고 실내에 구비된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한 구성요소들을 각 시대별 표본 수에 대한 빈도를 조사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2) 주출입구 평면형태의 연대별 변화과정

전체의 코어형태는 계단형과 복도형으로 나타나며, 2003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로비형과 계단형이 합쳐진 복합형태로 나타나고 각 평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6-D, E에서 나타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로 배치되는 일렬형 코어구성은 1980년대 30·40평형대¹³⁾에서 사용되어졌고, 표 6-F의 형태는 주동출입구, 경비실,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이어지는 병렬형 코어구성으로 2000년대 현재까지 가장 많이 계획되어지고 있고, 표 6-F형과 코어구성은 같으나 출입구의 형태에 있어서 원형의 형태를 보이는 표 6-G는 1980년대 후반에 30평~60평형에서 나타나서 90년대 전반 30평~50평형에 이르러 그 형태가 보이다가 사라지고¹⁴⁾, 내부경사로는 95년 30평형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2년에 이르러 50평형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표 6-H>.

출입구를 들어서면 내부계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형태<표 6-I>는 90년대 후반 30~60평형에서 주로

13) 80년대 아파트 표본 수에서 일렬형 코어구성이 보여지는 비율은 30평대(44%), 40평형(40%)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주출입구 평면형태의 시대별 변화과정

연대 평형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02년
		전	후	전	후	
20 평형대						
30 평형대						
40 평형대						
50 평형대						
60 평형대						
				2000년대 ~2003년		
30평형 ~60평형						

보이다가 2000년대에는 30평형대에서만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¹⁵⁾.

20평형대에서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코어구성이 복도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92년에는 법적기준에 의하여 복도형에서는 일반인용과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표 6-A>가 계획되어졌고, 93년에는 외부경사로<표 6-B>가 계획되어졌으며, 96년에는 20평형에서도 계단형이 등장하였으나 20평형대에서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코어구성이 복도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30평형대에서는 80년대 초반에 한 곳의 조사대상에서 복도형이 보이고 그 이후로는 계단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40평~60평형대에서는 30평형대의 특징과 큰 차이는 없으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50평형대에서는 출입구 내부 부분에 화장실이 계획되어져 있고<표 6-L> 이후 2003년 공동주택에서는 전 평형의 로비에 화장실이 계획되었다. 그리고, 50·60평형대의 단위세대 현관문의 크기가 두 짝(폭: 1500 mm)이 나타나고 있다<표 6-K>.

14) 80년대 분포비율: 30평형(1.1%), 40평형(20%), 50평(100%), 60평(33%), 90년대 분포비율: 30평형(1.78%), 40평형(20%), 50평(29%).

15) 90년대 분포비율: 30평형(1.78%), 40평형(20%), 50평(1.43%), 60평(50%), 2000년대 분포비율: 30평형(24%), 40평형~(0%)

2003년의 조사대상에서는 30평형대에서부터 전 평형대에서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1층 전체를 관리실, 우편시설, 휴게 및 접객시설, 수납시설, 화장실, 스포츠 시설, 자전거 보관시설,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계단¹⁶⁾등을 계획하고 출입구에 들어서면 로비를 지나 다음 주거세대에 이르는 출입구로 연결이 된다. 2003년 이전의 조사대상의 계단형에서는 하나의 주동출입구에 각 층마다 2개의 단위세대가 있고 하나의 주동에서는 최소 2개의 출입구가 있으나 이곳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하나의 주동출입구로 각 층마다 6개 이상의 단위세대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계획시 대피를 위한 지하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던 법규가 90년대 후반 삭제되면서 지면과 닿는 1층 부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생겨났고, 분양자율화에 의한 마감재의 고급화를 가져왔다<표 6-M>.

3) 외부 구성요소 시대별 특성 분석

외부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주출입구의 형태는 70년대에 75% 사용되었던 함입형<그림 1>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형태를 찾아 볼 수가 없고, 돌출형은 70년대 25%를 차지하던 것이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점점 대상수가 많아지고 있다. 70년대에는 함입형 A타입이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80년대에는 돌출형 그림 1-5, 90년대에는 그림 1-6, 2000년대는 돌출형 그림 1-3과 6, 4와 5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외부의 마감 재료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도장으로 각 연대별로 50~70%를 차지하며, 벽돌은 80년대에 17.6% 사용되어지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서는 29.7%로 사용빈도수가 조금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그 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석재의 경우 70년대에 25%를 차지하고 80·90년대에는 사용된 곳이 전혀 없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과 물매지붕으로 나타났으며, 평지붕의 형태는 <표 7>에서와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고 물매지붕은 외쪽지붕, 박공지붕, 반 박공지붕, 모입지붕<그림 1>으로 분류된다.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평지붕의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으나, 80년대부터 외쪽지붕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90년대에 그 수가 증가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물매지붕이 83%나 차지하며 그 형태의 분포도 박공지붕에만 국한되고 있다.

계단이 있는 조사대상에서는 진입이 정면, 혹은 측면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분류되며, 계단이 있는 곳은 80년대에 70.6%를 차지하다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계단이 없는 곳은 단을 두어 출입구의 바닥높이를 조절하여 비 등에 의한 외부 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있으나 보도와 출입구의 단 차이가 없는 형태가 90년대부터

표 7. 출입구 외부구성에 관한 시대별 분포비율

분류		시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형태	함입형	1	50%	4.8%	2.4%	-	
		2	25%	9.5%	-	-	
	돌출형	3	25%	-	2.4%	21.4%	
		4	-	14.3%	4.9%	28.6%	
		5	-	38.1%	29.3%	28.6%	
		6	-	9.5%	48.8%	21.4%	
		7	-	-	12.1%	-	
		8	-	-	12.1%	-	
재료	벽돌	-	17.6%	29.7%	-		
	도장	50%	76.5%	65.9%	70%		
	벽돌+도장	25%	5.9%	-	-		
	타일	-	-	4.9%	-		
	석재	25%	-	30%	-		
주출입구 형태	지붕의 형태	물매지붕	외쪽지붕	-	9%	17.4%	-
			박공지붕	-	-	13%	83%
			반박공지붕	-	-	4.3%	-
			모입지붕	25%	-	4.3%	-
	평지붕	평지붕	75%	63.6%	60.9%	17%	
		평지붕	-	9%	-	-	
	계단	유	정면진입	50%	70.6%	46.3%	50%
			측면진입	-	-	7.3%	-
		무	단차있음	50%	29.4%	29.3%	10%
			단차없음	-	-	17.1%	40%
난간		유	레일형	-	5.9%	26.1%	40%
			조적형	50%	17.6%	9.5%	-
	레일형+조적형		-	-	16.7%	-	
	화단형		-	11.8%	-	-	
무	50%	64.7%	47.6%	60%			
경사로	유	-	-	34.1%	50%		
	무	-	-	65.9%	50%		
천장	형태	평천장	75%	47.1%	65.9%	50%	
		단차 있는 천장	25%	52.9%	34.1%	50%	
	재료	도장	50%	82.4%	30.6%	30%	
		목재	50%	11.8%	53.7%	50%	
		금속	-	5.9%	9.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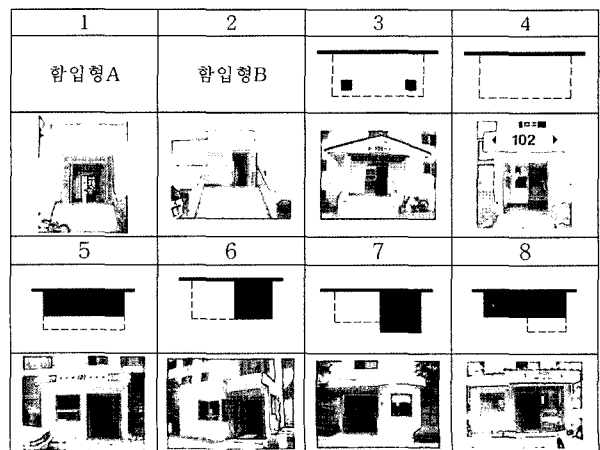


그림 1. 출입구의 형태

16) 이 조사대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있으며 지상의 주동과 주동 사이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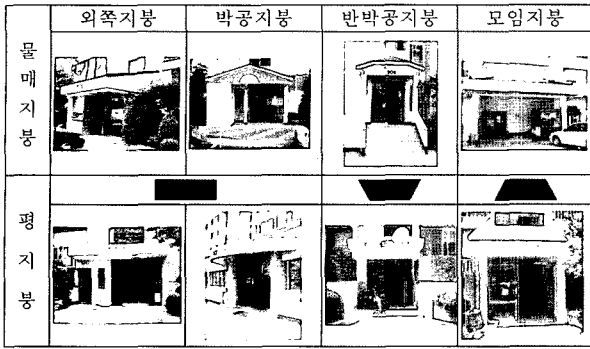


그림 2. 지붕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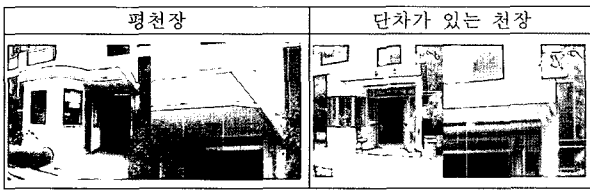


그림 3. 외부천장의 형태

생겨나고 이 후 2000년대는 40%에 이르게 된다. 그 방법으로는 배수구를 두거나 보도에 물배를 잡아 내부로의 물의 유입을 방지하였다.

출입구 진입시 80년대에는 난간의 형태를 화단으로 조성한 곳도 보이고 있다<그림 4>.

외부 경사로의 경우 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진입관계에 있어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양면진입은 70년대 20평형대 복도형에서 보였다가 2003년에 로비가 있는 복합형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사대상에서는 모두 일면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외부 천장은 70년대, 80년대에는 평천장의 분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80년대에는 52.9%로 단차가 있는 천장의 형태가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다<그림 3>.

천장의 재료에 있어서도 도장, 목재,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재료가 출입구 내부에 연결된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0년대에는 금속의 사용이 전혀 없었으나, 2000년대에는 사용빈도수가 점점 높아져 조사대상지의 금속 사용이 20%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목재로서 80년대 11.8%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50%전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내부 구성요소의 시대별 특성 분석

주출입구 내부의 천장은 70년대에는 100% 평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2000년대에는 단차가 있는 천장이 가장 많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고 2003년 조사대상지에서는 우물천장으로 마무리되었다.

천장의 재료에 있어서 텍스가 70년대에는 75%를, 90년대에는 2.5%가 사용되었고 현재는 조사대상 중 사용된 공동주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채무늬 도료¹⁷⁾는 각

연대별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채무늬 도료와 목재나 금속이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외부 천장 재료의 내부 연결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우세하다. 출입구 내부에 통풍이나 환기, 채광을 위한 창문의 계획은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점 그 크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바닥의 재료에 있어서는 70·80년대에는 인조석이 100%를 차지하던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 인조석의 물갈기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하여 사용 금지되면서 인조석의 사용빈도는 감소하고 석재나 가공된 인조석등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에서도 90년대에는 2.5%의 석재가 사용되어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53.8%로 사용빈도가 높아가고 있다.

내부 경사로<표 6-H>의 경우는 90년대 전반에 30평형대에서 나타나서 현재까지 다양한 평형대에 사용되고 있고, 실내구성요소 중 관리실의 경우 다음의 <표 8>과 같

표 8. 주출입구 내부구성에 관한 시대별 분포비율

분류		연대	70	80	90	00	
천장	형태	평천장	100%	76.5%	55%	16.7%	
		경사천장	-	-	5%	41.7%	
		단차가 있는 천장	-	11.8%	22.5%	33.3%	
		구조가 노출된천장	-	11.8%	17.5%	8.3%	
	재료	목재	-	-	2.5%	8.3%	
		도장	다채무늬도료	25%	64.7%	52.5%	33.3%
			도장	-	23.5%	-	25%
		다채무늬도료+목재	-	11.8%	32.5%	25%	
		다채무늬도료+금속	-	-	7.5%	8.3%	
		텍스	75%	-	2.5%	-	
벽	재료	다채무늬도료	75%	56.3%	80%	75%	
		도장	-	-	5%	-	
		다채무늬도료+도장	-	43.8	15%	-	
	목재+도장	25%	-	-	25%		
	창문 있음	-	-	40%	33.3%		
바닥	재료	인조석	100%	100%	90%	41.7%	
		석재	-	-	2.5%	58.3%	
		인조석+석재	-	-	7.5%	-	
	경사로 있음	-	-	10%	33.3%		
실내구성요소	관리실	100%	42.8%	70%	25%		
	우편시설	합	100%	92.9%	97.5%	66.7%	
		실	-	-	5%	33.3%	
	계시판(알림판)	100%	78.6%	72.5%	100%		
	시계	50%	42.9%	40%	25%		
	거울	75%	57.9%	60%	66.7%		
	간이의자	25%	21.4%	40%	-		
	CCTV	-	14.3%	17.5%	66.7%		
	자동문	-	-	7.5%	20%		
	대기실	-	-	-	33.3%		
	스포츠시설	-	-	-	33.3%		
	자전거보관실	-	7.1%	7.5%	33.3%		
	분리수거함	-	7.1%	10%	-		
텔레비전 및 기타				16.3%			

17) 1회의 분무도포로 여러 가지 색이 포함되어 생기는 도료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전	후	전	후
20 평 형 대	외부				
	내부				
30 ~ 60 평 형 대	외부				
	내부				
2000년대					
		~2002		2003	
20 평 형 대	외부				
	내부				
30 ~ 60 평 형 대	외부				
	내부				

그림 4. 출입구 시대별 내·외부사진

이 70년대 100% 주출입구에 배치되어 있던 형태가 CCTV와 자동문의 설치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80년대 조사대상지에서는 IMF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관리실은 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곳도 보이고 있다.

우편시설은 우편함의 설치가 우세하다가 90년대 우편 전용실이 5%를 차지하고 2000년대에는 33.3%로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편시설의 중요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가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비실 앞이나 엘리베이터 앞 공용공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노인 혹은 주거동민들이 앉을 수 있게 간이의자를 두다가 2003년 로비가 배치되어있는 조사대상지에서는 휴게 및 접객 공간으로 소파, TV나 독서대가 놓여져 있어 만남의 장소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관리실의 배치 수가 점점 줄어감에 따라 CCTV나 자동문의 사용빈도수가 늘어가고 있고, 2003년 조사대상지 <표 6-M>에서는 스포츠시설-헬스장, 실내골프장이 나타나고 있고, 로비에는 텔레비전이나 책꽂이를 두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거동민 전체를 위한 공용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주출입구 문의 크기가 대부분의 조사대상에서 2짝 여닫이문을 사용하였으나 2003년 <표 6-M>에는 1층 전체의 공용공간화로 인하여 계단형이 아닌 주출입구에서 로비를 통하여 각 주거동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주출입구의 입구 부분의 확장으로 4짝 문과 주동 입구는 자동미세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민영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대별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출입구 평면적 시대별 변화특성이다. 20평형대와 30평형대 이상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차이보다는 평형대에 따라 복도형과 계단형의 코어구성으로 구별되었다.

70년대에는 20·30평형대의 평형 혼합이 67% 이상 보여지고 80년대부터 60평대 이상의 평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전반, 복도형에서는 2개의 엘리베이터가 배치되기 시작했고 외부경사로와 내부경사로가 계획되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복도형이 주를 이루던 20평형대에서도 계단형 코어구성이 나타났고 30평형대 이상에서는 출입구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배치가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공동주택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평면 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먼저 2000년대에 계획된 조사대상에서는 50평형대이상의 평형에서 출입구 내부 화장실이 생겨났고 2003년 조사대상지¹⁸⁾에서는 이전의 조사대상에서 주출입구를 통하여 각 층마다 2세대가 배치되어 최소 하나의 주거동에 주출입구가 2개 이상이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의 주거동에 하나의 주출입구만을 가지면서 출입구 내부의 면적이 커지고, 1층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표 6, 그림 4>.

둘째, 출입구 외부구성의 시대별 변화는 출입구 전체 형태가 함입형에서 돌출형으로 변화되었고, 외부재료로는 도장 사용이, 지붕의 형태에서는 70년대 평지붕에서 2000년대 박공지붕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외부 천장 재료에

18) 건축연도는 2003년이나 모델하우스의 오픈은 1997년임.

서는 목재와 도장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금속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출입구 내부구성의 시대별 변화특성은 우선 천장의 형태를 보면 70년대에 평천장이 주였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차가 있는 천장의 비율이 높아졌고 천장의 마감재에 있어서도 70년대 75%를 차지하던 텍스의 사용은 도장이나 다채무늬 도료로 바뀌었다. 벽의 재료는 70년대와 2000년대에 각 25%의 목재·도장의 혼합사용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채무늬 도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채광·통풍을 위한 창문의 사용은 창의 크기나 위치의 변화가 없다가 2003년에 와서 <그림 4>에서와 같이 창의 크기나 수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바닥의 재료도 인조석이 주였던 것이 90년대부터는 석재 사용이 높아져가고 있다. 실내구성요소에 있어서 2002년 이전까지는 관리실, 우편시설, 게시판(알림판), 시계, 거울, 간이의자, CCTV, 자동문 등이 있었으나 2003년 조사 대상 공동주택 출입구 내부에는 30평 형태에서부터 전 평형대에 이르러 골프장, 헬스장, 휴게 및 접객 공간, 부출입구, 우편실, 화장실, 자전거 보관실, 지하주차장¹⁹⁾으로 이어지는 계단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입구에서 조사된 연대별 변화에서는 연대별 뚜렷한 변화의 특성은 보이지 않으나, 그 변화의 폭은 미비하게 나타난다. 2003년의 조사대상에서는 주출입구의 구성방식이 확연하게 변화되어 나타나며 그 변화요인은 공동주택 계획시 대피를 위한 지하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던 법규가 90년대 후반 삭제되면서 지면과 닿는 1층 부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등의 로비형 출입구가 계획되어졌고, 분양 자율화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고급화로 인하여 양적인 공급에서 질적인 경쟁으로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인하여 출입구 당 주호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면 첫째 출입구는 각 층세대로 연결되는 수직이동시 지나가는 이동의 기능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주동민의 모임이나 외부인과의 만남, 부가시설 사용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 공간의 세분화된 시설계획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출입구 내부면적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디자인의 관심은 높아져 천정·벽·바닥의 패턴사

용 등에 의한 공간 쾌적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동주택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질을 확보하게 되고 공용 부가시설-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으로써 생활의 편리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거주자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민영공동주택의 시대별 변화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로서 공동주택의 계획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아울러 공동주택 출입구 내·외부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싶은 이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임창복(1988), 한국도시단독주택의 변화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 이유미·임미숙·백혜선(2001), 소형아파트 거주자의 실내 공간 이용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 이종우·이해성(1988), 주생활 반응에 의한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 김경희(1995), 아파트 1층부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이진숙·이은혜(2004), 1970년대 이후 한국 주택거실의 시대별 실내구성 특성 및 이미지 경향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 박찬규 (1994), 아파트단지 1층부조후의 설계개선에 관한 연구 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 김찬주·박영기(2004), 복합용도건물의 출입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 김성수(1986), 일반단독주택의 대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9. 김경섭(2002), 고층아파트 문화와 사회 환경, 도서출판 건기원.
10. 강부성 외(1999),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공동주택연구회.
11. 서귀숙(2003), 도시집합주택 공용공간의 구성형태와 활성화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 유재현(2001), 고층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 로비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3. 오찬옥 외(2003), 아파트 실내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接受: 2005. 9. 8)

19) 2003년 조사대상지에서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고 주거동사이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